

정보통신공사업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



작 성 자 : 김효실 산업정책실장(수석연구위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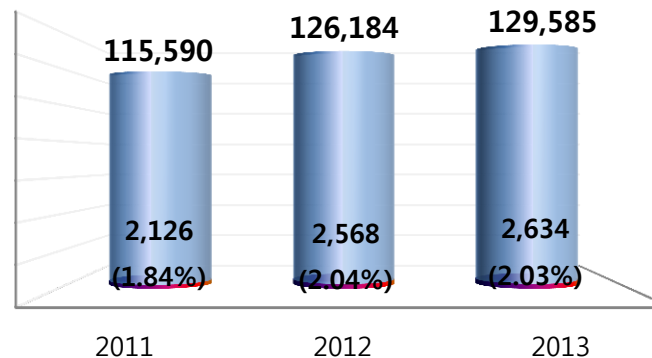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20 / E - hskim@kici.re.kr

-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최근까지 점진적 성장세였으나 정체 국면으로 진입('13년 13조 규모)
- 해외 수주실적은 국내 시장규모 대비 2% 수준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
- 해외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121조('13년) 수준으로 추정되며, 이에 비하면 국내 공사업체의 해외수주실적은 0.002%수준에 불과함

(단위:억원)

구 분	2011	2012	2013
국내 공사실적	115,590	126,184	129,585
해외 수주실적	2,126	2,568	2,634
해외 수주비율(%)	1.84	2.04	2.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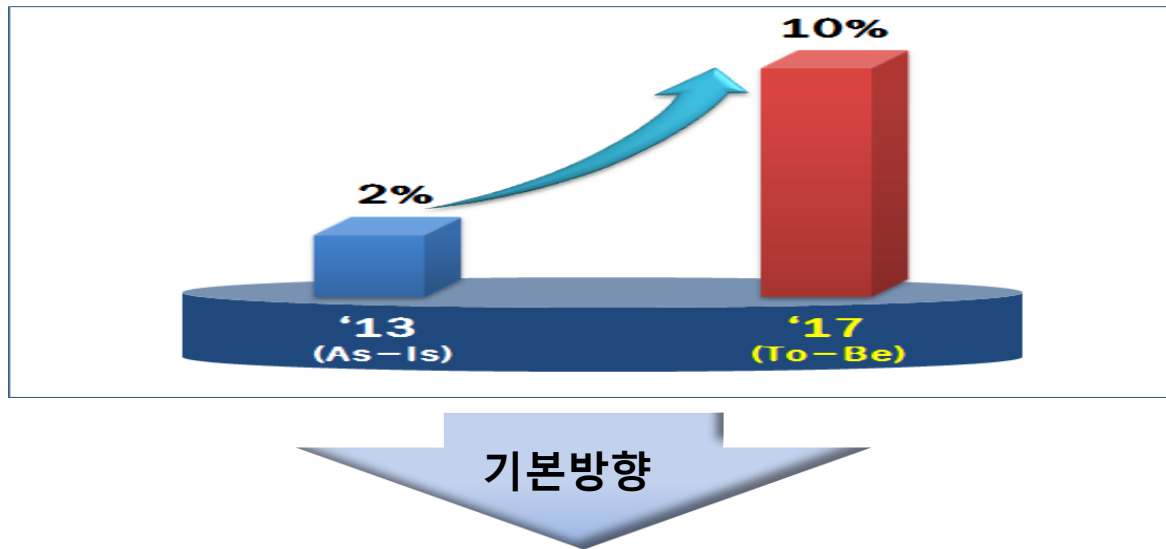
(단위:억원)



■ 해외매출규모 ■ 국내매출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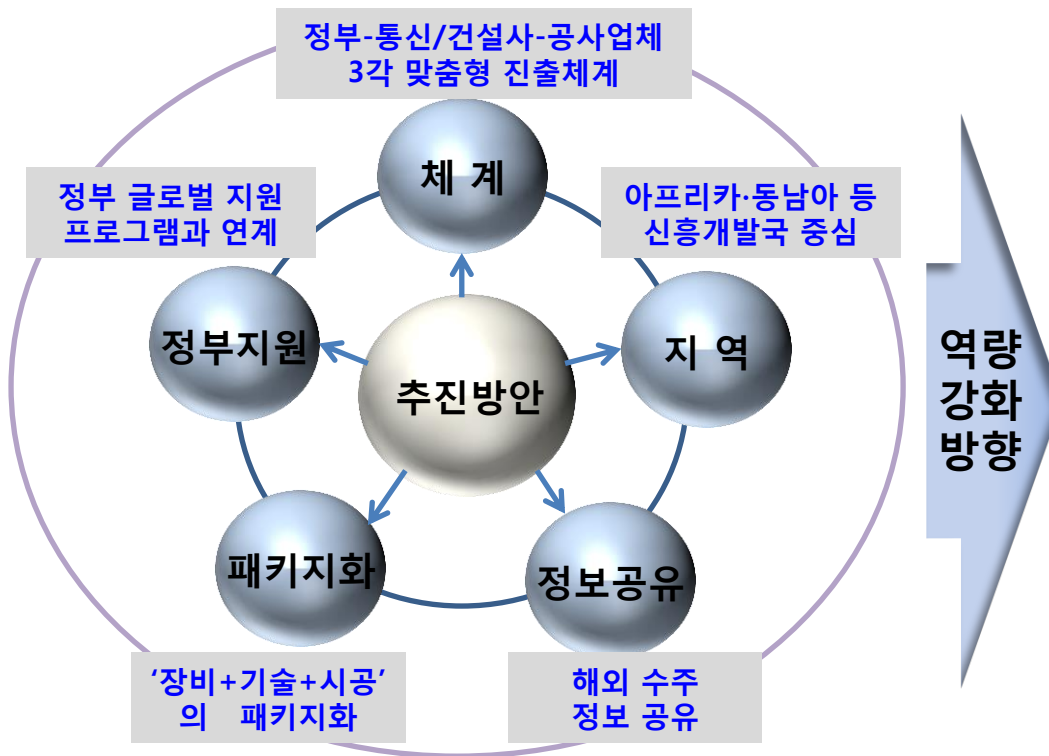
- ▶ 정보통신공사업의 정체된 국내 내수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국가적인 신규 시장을 창출해야 함
- ▶ 해외 새로운 글로벌 진출 강화전략을 통한 명실상부한 '공사업의 글로벌화' 및 우수 역량보유 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가 필요한 시점임

- 목표 : 2017년까지 글로벌시장 목표는 국내 공사업 시장규모의 10%수준으로 확대



- 정부차원의 글로벌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연계·활용
- 개도국과의 G2G개념으로 프로젝트 발굴 및 ODA·EDCF지원 연계
- 공사업체 컨소시엄 구성 및 통신사·대형건설사 등과의 협업 및 동반진출 방안 모색
- '시공 및 기술'의 패키지화를 통한 해외 진출
- 필요시 국가를 대표하는 'ICT공사업' 기관 또는 부서 지정·운영

- 공사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단형 진출체계를 갖추고 공사업에 차별화된 해외진출 강화전략을 실행해야 함



① 차별화된 정부지원 프로그램 연계·마련

② 전략적 역할분담 및 포지셔닝

③ 정보제공·공유 체계 마련

④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체계 강화

⑤ 법·제도 근거 조항 마련

(1) 미래창조과학부

○ ICT장비·S/W 등 7대 ICT분야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

- 서비스업체, 수주업체, 장비업체간 협력을 통해 선단형 수출 지원
- '장비+서비스+콘텐츠'를 통합한 ICT패키지형 전략상품 개발
- 예) '네트워크구축+ICT솔루션'이 결합된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해외 진출 등

○ 중소·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

- KOICA·해외공관·KOTRA(IT사업단, Plant수주지원단) 등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

○ 선단형 진출체계 구축 및 개도국 등 국가대상으로 정부차원의 G2G프로젝트 발굴

- 양국 '정부(장차관급) + 민간차원(통신사·협회·연구기관 등)' 공동 참여 → 선단형 진출체계 구축
- 개도국 등과의 ICT 공사분야 서밋 개최 등 검토 추진

(2) 산업통상자원부

○ 정부간 무역(G2G) 확대 및 대기업·중소기업 동반 진출

- 방산·치안 등 분야 대상 G2G 수출 지원(중남미 등)
- 대기업·공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, 대기업 해외유통망을 중소기업 활용토록 지원
- 미국·EU·호주 등 공공 조달시장 진출전략 수립 추진('15.6)

○ KOTRA를 통한 수출지원 및 해외정보 제공

- 국가별·분야별 전문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컨설팅
-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지원, 해외시장조사, 해외진출전략 설명회
- 중소기업대상 글로벌인재 발굴·고용 등 맞춤형 지원

(3) 행정자치부

○ 해외수출 사업 발굴 및 공공기관·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

-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와 정보화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, 정보화협력 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차원 협력 및 기업해외진출 지원
- 외국 정부와 전문가회의(Experts Meeting) 개최, 정책 컨설팅으로 해외수출 사업 발굴

(4) 중소기업청

○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

-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, 해외 진출 맞춤형으로 지원
- 글로벌 역량진단부터 R&D, 해외마케팅,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육성(3년간 285개사 지원)

○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및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

-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으로 인지도 개선 및 판로 지원

(5)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

○ 패키지 개념의 수출지원 및 네트워크 장비 수출의 전략적 추진

- 'Device+기술'의 패키지 개념 수출 지원 및 컨소시엄 개념 지원
- 인도네시아·태국·베트남 등 네트워크 장비 전략시장 우선 공략
- 저렴한 장비·인건비 등을 앞세운 중국경쟁력 극복·활용방안 검토

○ 스마트 시티 등 통합 개념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지원

- '플랫폼+어플리케이션+장비' 등 통합 프로젝트 발굴
- 아프리카·동남아 등 개도국대상 스마트시티, 상하수도 구축, 지능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

○ ODA사업과 연계한 중소·벤처 기업 개도국 진출 지원

- ODA사업 기획·추진 단계에 중소·벤처 참여기회 확대

(6) 한국국제협력단(KOICA)

○ KOICA의 기획형·펀딩 요청형 프로젝트 참여 및 ODA지원 유도

① KOICA주도하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 프로젝트 기획

- 정보통신공사업체 전문가도 기획단계에 참여하여 공사업에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기획

② 해당기업(컨소시엄)에서 개발한 해당국 프로젝트를 KOICA에 펀딩요청(매칭 프로그램)

○ ICT기술 활용 프로젝트 및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지원

- KOICA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중소기업체 등록을 통해 연간 발주정보 및 입찰참여 자격 확보
 - 정보통신공사업체도 등록을 통한 혜택 가능(중소기업가산점, 공사업전문가 Pool 확대)
- 해외 44개 지역사무소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
- 원조 조달 설명회(ebid.koica.go.kr)을 통해 입찰공고, 발주물량 파악

○ 해외 대규모 인프라사업추진을 위해 '경험 연계형 ODA' 추진

- ODA와 대외정책수단(통상, 투자, 금융 등)과 연계로 개도국과 경험 파트너십 구축
-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추진을 위한 패키지 구성, 현장중심의 ODA 활용체계 강화

(7) 대외경제기금(EDCF)

○ 대규모 경제개발사업 실시에 필요한 개발사업차관 지원사업 운영

- 상하수도 설비, 공장설비 프로젝트 등 경제개발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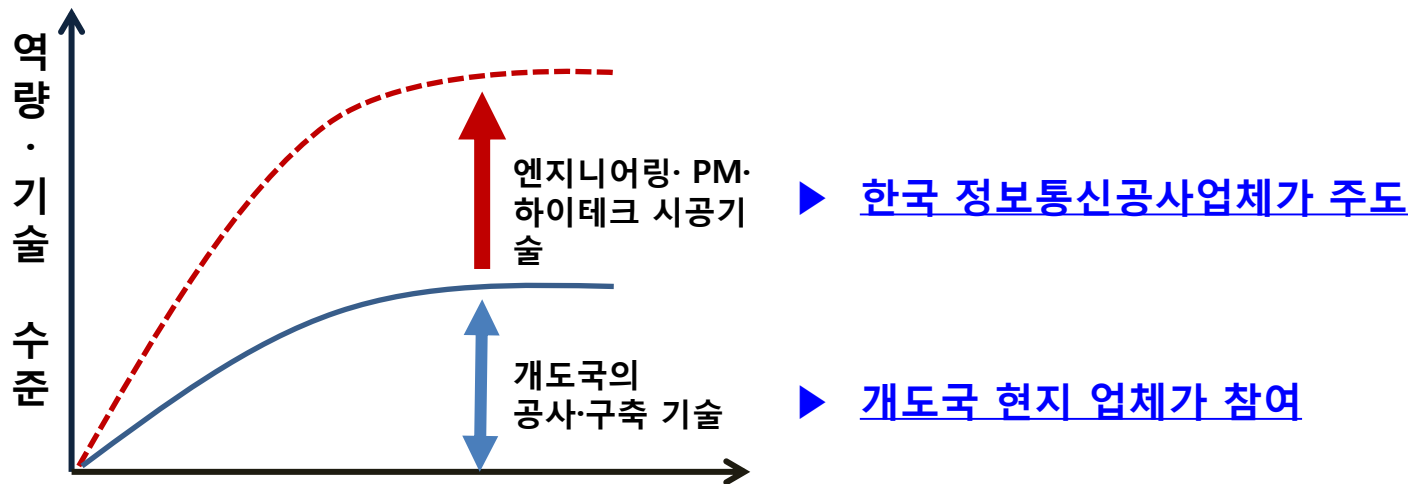
○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소액 EDCF 차관제도 별도로 운영

○ 상대국 테크노파크(TP) 등 건물 공사시 컨소시엄 진출 지원 사업

- 건설사, 정보통신 기기업체, 공사엔지니어링업체 컨소시엄 진출
- 정보제공, 접목가능 아이디어 제공, 국내기업 동반진출 지원

(1) ICT공사업의 맞춤형 솔루션 및 역할분담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국내 공사업체(한국) → 엔지니어링 및 PM, 하이테크 시공기술 위주 역할 주도로 통합적 역할 수행
- 현지업체(해외) → 실제적 공사 및 구축 수행(또는 중국기업 활용)



(2) '공사 + 엔지니어링기술'의 패키지 솔루션 제공

- 단순 '공사'보다는 '설계+감리+컨설팅/타당성조사+공사'등의 패키지 역량을 개발
- 한국의 공사업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및 홍보 확대

(1)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·운영

- KOICA, EDCF 등 글로벌 입찰 및 시장 정보 구축
- 해당국의 공사업관련 법제도·시공/기술·시장 정보 제공
- 전세계 공사업 관련 입찰관련 정보를 공사업체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수 있는 체계 마련
- ※ 진출국 시장정보를 비롯한 입찰, 금융, 계약 등의 정보제공(수출입은행, KOTRA 등 연계)을 비롯하여 해외진출 컨설팅 및 해외공사 수주 계약 보증, 개척(조사, 계약섭외 등)비용 등 지원

(2) 해외진출 정보 제공·공유 및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정보 창구 개설

- 각종 해외진출 정보 및 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
-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성공 사례의 전파·공유
- 해외진출 관련 세부 정보 수집을 위한 온라인 창구 개설
- ※ 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사협회 온라인 사이트(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) 활용 방안 모색

(1) ICT공사업 글로벌 진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·교류 방안 마련

- 프로젝트 개발, 펀딩, 엔지니어링(설계-조달-시공), 계약 등 공사업 해외진출 전문가(Expert) 양성
-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설 및 현지전문가 초청 교육프로그램 지원
(ODA해외초청연수 수요조사 참여 등)

(2) 원활한 ICT공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단계적 글로벌 진출

- 글로벌 선두 공사업체위주로 단계적 글로벌 진출 시스템 준비
- 준비된 공사업체(규모, 실적, 역량 등)부터 해외진출 지원 후 확대
- 공사협회/공사업체 등 협력을 통한 공사업체 컨소시엄 구성

(3)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담TF구성 및 ICT공사업을 대표할수 있는 국가적 조직역할 검토

-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을 위하여 산·학·연·관이 참석하는 '해외진출 전담TF' 구성·운영
 - 미래부, 공사협회/업체, KICI(연구원), 통신사, NIPA, KOTRA 등으로 구성
- G2G 프로젝트 발굴, 정보수집·제공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부서 구성(NIPA 등 전담부서 검토)
 - G2G 프로젝트 수주시 국가 대표기관으로 역할 수행하는 방안 모색

-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사항에 대한 법·제도적 근거 조항 마련
-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, 자금, 인력, 컨설팅 등 지원사항 포함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항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조항 신설(안)

제24조 (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)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.

제24조의2 (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~④ :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, 연구·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

(신설) 제24조의3(해외시장 진출의 지원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, 자금 및 시공인력 확보,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·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최근 정체되어가는 국내 공사업 내수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, 공사업체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신규 글로벌 시장 창출이 시급함
- 이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, 공사업체의 경쟁력강화를 기반으로 신규 글로벌시장을 열기위해 새로운 통합적 가치창출을 시도해야 함

